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



전략 소식지 4권 12호 2018년 12월

11월 활동

에이브럼스사령관, 공동경비구역 방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 첫 주에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을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대한민국 외교부 방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11월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첫 만남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안보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노력의 핵심이며,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지고 양국은 더욱 가까워 질 것입니다. 여기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 장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남북간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 지원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월 평양에서 남북 대표단이 서명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의 이행을 통해 평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11월, JSA 비무장화와 남북 공동유해발굴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지뢰 제거 초기 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일부를 철수하고, 향후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점검활동을 지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 및 대북 국제



사진: 미 육군 병참 센터인 피슨즈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이취임식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11월 8일 전임자인 빈센트 K. 브룩스 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사령관 이취임식은 캠프 험프리스의 유엔군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존 베시빌딩 앞의 비에 젖은 바커 필드에서 거행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외교적인 평화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노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는 시기에 부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수십 년간 더욱 견고해진 한미동맹과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했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방문객

11월 사령부를 찾아주시는 주요 방문객입니다.

- 카리 빙엔, 미 국방부 정보부차관, 11월 4-6일
- 필립 오스본 공군 중장, 영국 국방정보국장, 11월 5-7일
- 폴 셀바 공군 대장, 미 합참차장, 11월 6-8일
- 조지 반츠, 미 국가안보국 부국장, 11월 6-8일
- 오노즈카 타카유키 중장,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부장 (육군참모차장), 11월 7-8일
- 모토마츠 타카시 중장, 일본 부통합막료장 (합참차장), 11월 7-8일
- 필립 데이비슨 해군 대장,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11월 7-9일

- 제리 마르티네스 공군 중장, 주일미군사령관, 11월 7-9일
- 로버트 브라운 육군 대장,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11월 7-11일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11월 8일
- 데니얼 데일리, 미 육군 주임원사, 11월 14-17일
- 토마스 버거슨 공군 중장,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 11월 15-18일
- 에릭 스미스 해병 중장, 미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 11월 28-29일
- 조나단 나이트, 영국 국방정보 부국장, 11월 29-30일

피드백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환영합니다